

화천 간척리·양구 하리·인제 원통리·속초 노학동 동서고속철 역사 들어선다

〈驛舍〉

도 지역특성화 용역 착수보고회
시발역은 현재 춘천역 활용기로
전체 3개권역 차별화 개발 추진

강원 북부권과 영동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춘천-속초 동서
고속철도 역사권 개발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관련기사 16면

도는 지난 23일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마
련할 방침이다. 도 및 시·군에 따르
면 춘천은 동서고속철도시발역으로
현 춘천역을 활용한다. 역 앞으로 국
도 56호선이 지나가며 반경 5km 이내
에 춘천 주요 도심이 모두 포함될 만
큼 우수한 접근성이 장점이다. 춘천
지역사회는 일부 구간 지하화를 요
구하고 있으나 예산과 공사기간 등
의 문제로 어려움을 전망한다.

화천은 간동면 간척리, 양구는 양구
읍 하리, 인제는 북면 원통리, 속초는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노선도



노학동 일대에 정거장 신설 방안을 추
진하고 있다. 양구군은 당초 상리·송
정택지 인근을 역사예정지로 원했지
만 노선에 군비행장이 위치해 있어 차
선책으로 일단 하리를 선택했다.

역사 최종 위치는 오는 9월 최종
확정된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도와 해당 시·군은 이들 지역을 7
월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역사권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양구군
은 지역사회에서 역사 위치를 놓고
논란이 지속,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서 제외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도는 철도노선 개발과 관련해 춘
천(West Point), 화천-양구-인제
(Middle Area), 속초-고성-양양
(East Point) 등 세 개의 권역으로
나뉘 특성화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수도권의 은퇴자 유입과 실버 및
여가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 기본 콘셉트다. 주거와 산업, 레저
를 아우르는 복합도시로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춘
천은 역사권을 집적개발해 기업 유치
및 창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화천-양구-인제는 역사권과 중심
시가지 연계 개발로 농업과 관광 활
성화,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한다. 속
초-고성-양양은 대중교통과 연계한
역세권 집적 개발을 통해 강원 북부
권 관광, 레저, 물류산업 거점으로 집
중 육성한다.

도 관계자는 “동서고속철도 신설
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역사 주
위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 지역과 연
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현기자

공원·자전거도로·조깅로
114억 투입 현리에 조성

【인제】인제군이 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해 기린면 현리 일원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

군은 이를 위해 2018년까지
기린면 현리 785 2만3,057㎡
부지에 국비 20억원 등 총 50
억원을 들여 현리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리근린공
원은 자연과 지의 역사인물인
무사 백통수를 스토리텔링한
이색 테마공원으로 마련되며
피크닉 마당, 메타세쿼이아길,
조형분수, 은하수초화원, 별자
리놀이터, 모험놀이대, 체력단
련시설 등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군은 국비 32억원
을 포함한 총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기린면 현
리 내린천변 일원에 자전거도
로와 조깅로를 만든다. 자전거
도로와 조깅로는 기린119안전
센터부터 3군단 하천변 구간에
걸쳐 1.3km 규모의 순환형 도로
로 조성되며 현재 공사가 60%
이상 진행됐다. 이번 편의시설
의 확충으로 지역 주민 복지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
이다. 김천열기자

동서고속철 양구역사 선정 지연

〈驛舍〉

양구군-군부대 비행장 이전 등 협의의 별다른 진척 없어
군의회서 부지 재검토 논란도- 군 “국방부와 논의 지속”

【양구】동서고속철도 양구역사
의 위치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양구군은 동서고속철도 역
사 위치와 노선은 지역의 장기
적인 발전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자체
적으로 용역을 실시했다.
군은 용역 결과에 따라 상

리·송정택지 인근에 역사를 설
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으나
예정 노선에 양구읍 안대리 비
행장이 위치해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국방부, 육군 3군단 등
과 안대리 비행장 이전 또는 비
행장 일부의 철도 부지 편입 등

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강초 6월까지의 역사 위치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여정된
일정에 맞추기가 어렵게 됐다.
또 도가 7월 중 동서고속철
도 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
획이 가운데 양구군은 우선 대
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임철호 군의회 부의장은 최
근 의회에서 “도시 발전 전문

가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
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창수 의원은 “군
이 고려하는 역사의 위치와 노
선이 비용 측면에서도 부적합
하다”며 재검토를 당부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협의
가 진행되는 중이고 양구의 미
래와 종합적인 발전 방향에 적
합한 노선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심은석기자